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21년 5월 3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64천 km <sup>2</sup> 	<b>인구</b> 1.3억 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주의 
<b>GDP</b> 1.1조 달러 (2020 <sup>e</sup> ) 	<b>1인당GDP</b> 8,421달러 (2020 <sup>e</sup> ) 	<b>통화단위</b> Peso (Ps) 	<b>환율(US기준)</b> 21.49 (2020 <sup>e</sup> ) 

-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나 1,964천 km<sup>2</sup>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한 세계 16위 및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석유, 은,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수출 및 대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치안, 부패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PEMEX 등 주요 국영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치안 및 부패 문제 심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발효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된 에너지 정책 기조, 최근 불법 이민자의 폭증 등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사증면제각서교환('79), 항공협정('89),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약('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관광협력('97), 투자증진·보호협정('02),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조약('07),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1,458,233	10,927,016	8,241,006	자동차부품, 철강관, 평판디스플레이
수입	5,090,068	6,159,866	6,355,879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38건, 6,200백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경제성장률	2.6	2.1	2.2	-0.1	-8.2
소비자물가상승률	2.8	6.0	4.9	3.6	3.4
재정수지/GDP	-2.8	-1.1	-2.2	-2.3	-4.6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에도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전망

- 멕시코 경제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기름 절도단'의 송유관 공격, 대선 전후의 불확실성, AMLO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9년(-5.3%)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임.
- 2020년에는 본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계획 실행,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발효 등의 영향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 환율유가 불안, 투자환경 악화 등이 지속되어 -8.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내수 활성화 및 미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인해 5%의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이 전망되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 분야 공공지출 증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임.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전망

- 멕시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및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2017년 6.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AMLO 행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화되어 2019년 중순부터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4%) 내에 관리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소비·투자 둔화 등의 물가 하방 요인과 원자재 공급망 훼손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 폐소화 가치하락 등의 물가 상방 요인이 혼재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3.6%)과 유사한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소비·투자가 전년 대비 활성화되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멕시코 중앙은행의 신뢰성 있는 물가안정 정책을 기반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중앙은행은 1982년 모라토리엄 선언 및 1994년 '데킬라 위기'(폐소화 폭락, 대규모 자금이탈로 인한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여 수출 다각화,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통화정책 신뢰성을 확보해 온 것으로 평가됨.

## 국내경제

### 지속적인 긴축 재정정책 추진으로 재정적자 축소 전망

- AMLO 행정부는 2018년 12월 취임 후 멕시코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고위공무원 급여 및 전 대통령 연금 삭감,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 및 혜택 폐지 등을 단행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AMLO 행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함. 2021년 3월 4일 기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멕시코 경기부양책 규모는 2020년 GDP의 약 1.9%로 추산되며, 이중 직접적인(above-the-line) 재정지원은 2020년 GDP의 0.7% 수준에 불과함.
- 2021년 4월 IMF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이는 G20 신흥국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책 규모(아르헨티나 6%, 브라질 15%, 인도 8.4%, 러시아 5.8%, 터키 11.3%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효과 완화 및 빠른 경제회복 촉진 등을 위해서는 AMLO 행정부의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멕시코 국세청(SAT)에 따르면, 강력한 세무감사 실시를 통한 탈세 근절 및 체납세금 징수 노력 등을 바탕으로 2020년 GDP 대비 조세수입은 14.4%로 경기침체에도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국영 석유기업 PEMEX 및 국영 전력기업 CFE의 회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계속되어,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6%로 전년(-2.3%) 대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이는 중남미 내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브라질 -13.4%, 콜롬비아 -6.9% 등)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임.
- 한편, 2021년에는 인프라 투자 및 주요 국영기업 지원 등이 잇따를 것이나, AMLO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관리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의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Banco de México, EIU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경 상 수 지	-24,352	-20,434	-25,339	-4,238	27,382
경상수지/GDP	-2.3	-1.8	-2.1	-0.3	2.5
상 품 수 지	-13,070	-10,984	-13,767	5,214	34,334
상 품 수 출	374,305	409,806	451,083	461,040	417,975
상 품 수 입	387,375	420,790	464,850	455,826	383,640
외 환 보 유 액	168,746	164,892	165,197	170,580	184,175
총 외 채	412,600	441,577	453,158	469,729	478,693
총외채잔액/GDP	38.3	38.1	37.1	37.0	44.5
D.S.R.	11.5	12.5	10.8	12.5	11.4

자료: IMF, EIU

### 32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 전환하였으나 총수출은 급감

-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1988년 이후 32년 연속)를 안정적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충당해 온 국가임. 2019년에는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 및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0.3%로 전년(-2.1%) 대비 개선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글로벌 교역규모 급감에 따라 멕시코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9.3%, 15.8% 감소한 결과 오히려 상품수지가 전년 대비 개선되면서 32년 만에 GDP 대비 2.5%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소득수취를 모두 반영한 총수출증가율이 -12.1%를 기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멕시코에 대한 수입수요 증대, 멕시코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ECLAC)는 2020년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국제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멕시코 수출이 전년 대비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백신의 원활한 보급, USMCA 발효로 인한 경제협력 증가 등에 기인함.

## 외채상환능력

###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 확보

- 멕시코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은 자동차 산업에 이어 멕시코 제2의 외화수익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임.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년(364억 달러) 대비 11.4%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실업수당 확보, 미국의 고용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 이민자들의 소비 감소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멕시코 이민자들의 소비 증가 등으로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이 전년(406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및 KNOMA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멕시코의 총 해외송금 유입액은 전 세계에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또한, 2020년 FDI 유입액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FDI 둔화, 제한적인 경기부양책 규모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등으로 전년(329억 달러) 대비 대폭 감소한 277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2021년에는 글로벌 투자 경기 회복에 따라 멕시코의 FDI 유입액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AMLO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강화될 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임.
- 이에 멕시코는 2020년 상품수지 흑자와 더불어 해외송금 및 FDI의 유입을 기반으로 전년(1,706억 달러) 대비 약 8% 증가한 1,842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멕시코의 2020년 월평균수입액의 4.8개월분에 해당함. 향후 2025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의 5개월분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의 해외 근로자 송금 및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co de México, UNCTAD, EIU. 2020년 FDI 유입액은 추정치.

## 외채상환능력

### 코로나19 위기에도 외채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0년 말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37.0%) 대비 증가한 44.5%를 기록하였으나, D.S.R.은 역내 주요 국가들이 30~40%대를 기록한 데 비해 10%대 초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등 외채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함.
- 2021년에는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채상환 비용 증가가 우려되나,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AMLO 행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면 외채 관련 위험이 국가신용도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2009년 IMF가 멕시코 앞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한도(Flexible Credit Line, FCL)를 승인한 이후 멕시코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동 한도를 꾸준히 갱신하며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시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적극 마련해 옴.
- 2019년 11월 22일 IMF는 동 한도의 금액을 74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로 감액한 2년 연장안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11월 20일 Press Release를 통해 멕시코가 변동환율제, 신뢰성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제,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바람직한 금융규제 등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힘.

## 구조적취약성

###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수출 산업의 편중

- UN Comtrade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7월 누계 기준 멕시코 수출의 79%, 수입의 43%를 점유하는 국가로, 미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대외정책 방향은 멕시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기존 NAFTA를 대체하여 2020년 7월 1일 USMCA가 발효되며 멕시코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 미 인구조사국(USCB)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는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를 입어 6,145억 달러의 대미 교역량을 달성하며 중국을 제치고 대미 교역량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은 중국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어줌.
- 또한 UN Comtrade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가 2020년 7월 누계 기준 멕시코 수출의 58%, 수입의 46%를 차지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줌. 특히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GDP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멕시코의 경기에 비교적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멕시코 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며 2011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함. 2021년에는 북미 시장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 원유 산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

- 멕시코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원유 생산·수출국으로, 국가경제 전반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멕시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20년 기준 약 171만 배럴로 세계 14위, 중남미 2위 수준이며, 일일 원유 수출량은 2016년 기준 약 128만 배럴로 세계 12위, 중남미 2위 수준임.
-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및 OPEC의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약 30% 하락하였으며, 폐소화 가치 폭락과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CDS 프리미엄 폭증으로 이어짐. 이에 2020년 4월 멕시코의 원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4% 감소하여 1986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OPEC 등 산유국의 감산 노력,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방침 등으로 인해 2021년 들어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이에 멕시코의 재정수지 등 경제지표 역시 동반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소화 평가절하 압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임.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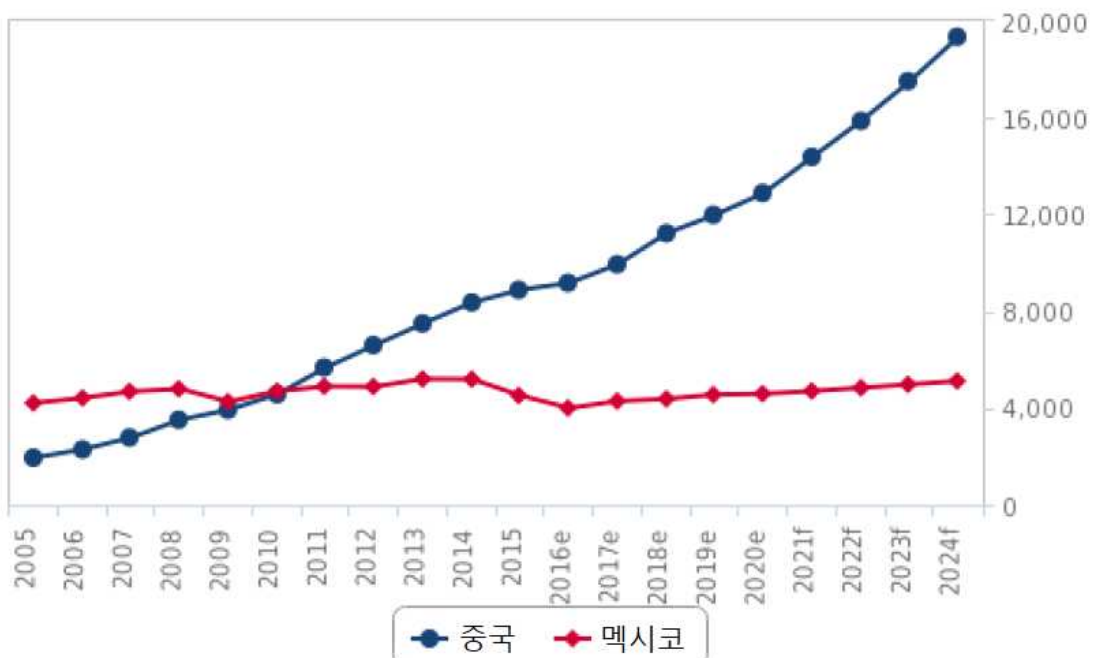
### 석유 및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멕시코는 막대한 석유자원과 은, 아연 등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원 부국임.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미 에너지정보국(EIA) 및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확인매장량 19위, 아연 매장량 4위·생산량 6위, 은 매장량 6위·생산량 1위 국가임.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속 역할 부상

-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가동이 중단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됨. 시장 참여자들은 단일 기업, 혹은 특정 지역에서의 소싱에 집중된 기존의 공급망이 일시적·국지적 충격에도 전체 네트워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글로벌가치사슬은 중국과의 탈동조화(China Decoupl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현상, 공급망 단위의 분산화 등의 변혁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과정에서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멕시코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 2018년부터 멕시코는 중국의 공급망을 급격히 대체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심화, 저임금 구조, USMCA 발효 등으로 인해 미-멕시코 간 니어쇼어링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19년 멕시코는 6,145억 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1위 교역상대국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

중국·멕시코의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 (단위: 달러)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 정책성과

###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함께 고려한 통화정책 실시 노력

- 2019년 8월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중 갈등 장기화 및 멕시코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근거로 약 5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2020년 9월까지 11차례 연속(8.25% → 4.25%)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 이후 10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4.1%로 목표 범위(2~4%)를 벗어남에 따라 11월에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동결함. 이러한 기준금리의 신중한 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추이를 유지함.
- EIU(2021. 3월)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분기 3.4%, 2분기 2.8%, 3분기 3.9%, 4분기 3.5%를 기록하며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수요의 변화율이 1분기 -2.5%, 2분기 -20.8%, 3분기 -11.9%, 4분기 -9.2%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됨.
- 2021년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4.25% → 4%)하였으나, 3월 26일 멕시코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4%에서 동결함. 이와 같은 매파적(hawkish) 판단에는 미국의 1.9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및 대외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회복, 예상보다 높은 최근 물가상승률 추이 등의 요인이 반영됨.
-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1년 들어 멕시코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월 3.5%, 2월 3.8%, 3월 4.7%로 꾸준히 상승하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벗어남.
- 2021년 4월 8일 공개된 지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추세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견인하되 물가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멕시코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Banco de México, Trading Economics

## 정책성과

###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따른 확진자·사망자 수 증가세 지속

- AMLO 행정부는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 긴급조치를 선언하고 여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필수 업종 제외 활동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함. 이후 6월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3분기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함.
- EIU(2021. 3월)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1%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민간소비는 10.7%, 총고정투자는 21%, 상품수출은 40.2%, 상품수입은 16.5% 증가함.
- 2021년 3월 말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세계 10위권이며, 병실 및 산소탱크 부족 등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치명률은 공식적으로 10%에 달함. 이에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월 말 공식 집계 기준 20만여 명으로 미국(56만여 명), 브라질(31만여 명)에 이어 세계 3위임.
- 한편, 2021년 3월 28일 멕시코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이 기존 통계보다 60% 이상 더 발생하여 실제 누적 사망자 수는 최소 32만 명 이상(세계 2위)일 것으로 추산됨.
- 이와 같은 증가세는 AMLO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과소하게 투입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AMLO 행정부는 2021년 3월 4일 기준 G20 신흥국 중 최소 규모의 경기부양책(2020년 GDP의 1.9%)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의료환경과 빈곤실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멕시코의 코로나19 대응책 (2021. 3. 4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재정정책	2020년 GDP의 약 1.9%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 직접적인 재정지원(above-the-line measures) 0.7%, 대출 및 자본 투입 등 지원(below-the-line measures) 1.2% 1. 고령층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우선 2. 조달 절차 및 부가세 환급 가속화 3.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대출 지원 4. 개발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및 보증 지원 5. 공무원 대상 저금리 대출(Préstamos ISSSTE) 지원 등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및 8,000억 페소 상당의 금융 시스템 운영 지원 1. 신용흐름 회복 지원 :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상업은행·개발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2. 유동성 회복 지원 : 보다 긴 만기의 국채 매입 실시 등 3. 자본시장 운영 지원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라인 체결 등
대외정책	차액결제선물환(NDF) 헤지 프로그램 확대(200억 달러 → 300억 달러, 페소화)

자료: IMF Policy Tracker(2021)

## 정책성과

### 국영 기업 투자 손실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및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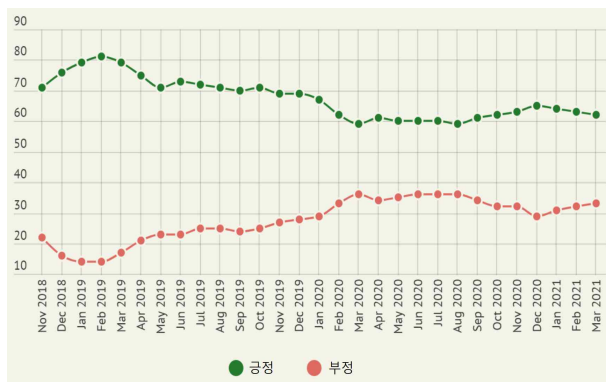
- AMLO 행정부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영 석유기업 PEMEX 및 국영 전력기업 CFE의 역할 및 재무구조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방만 경영 및 부패 문제 등으로 재무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됨.
- 2020년 PEMEX는 코로나19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 악화된 약 2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차입성 부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132억 달러를 기록함. 이에 AMLO 행정부는 지속적인 자본 투입,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PEMEX의 부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같은 과도한 자금지원이 지속될 시 멕시코의 재정여력은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 AMLO 행정부는 PEMEX에 2019년 4,646억 페소, 2020년 5,234억 페소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5,445억 페소 규모의 지원을 계획 중임.
- 또한, AMLO 행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촉진 정책에 제동을 걸며 민간 개방을 제한해 옴. 2020년 7월 8일 멕시코 에너지부(SENER)가 발표한 '에너지 부문별 프로그램 2020-2024(Programa Sectorial de Energía 2020-2024, "PROSENER")'에 따르면, AMLO 행정부는 PEMEX와 CFE의 종합적인 생산량을 통해 멕시코의 에너지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2021년 3월 9일 CFE 발전 전력의 우선적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며 국가 전력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 보장 및 CFE의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업계에서는 동 개정안이 비교적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민간 부문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훼손 및 자유경쟁 제한에 따른 멕시코의 국제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2021년 3월 26일 AMLO 대통령이 발의한 탄화수소법 개정안 역시 PEMEX 앞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석유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요컨대, PEMEX 및 CFE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친(親)공기업적인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 손실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및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정치안정

### AMLO 행정부, 지지율 하락세에도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보

- 멕시코의 여론조사기관 Oraculus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지지율은 2019년 2월 8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2020년 초에는 59%를 기록하여 출범 이후 처음으로 60%를 하회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온건한 범죄대책 고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7월 El Financiero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38%), 코로나19(30%), 치안(18%) 순임.
- 그러나 현재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과 노동당(PT), 환경주의 녹색당(PVEM)이 6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성한 좌파 선거연합(Juntos Hacemos Historia)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32개 주 중 7개 주의 주지사 및 17개 주의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AMLO 행정부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도혁명당(PRI),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의 야3당은 2021년 6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Va Por Mexico' 연합체를 결성하였으나, 2021년 1월 Heraldo de México가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15개 주지사 선거 지역 중 11곳에서 좌파 선거연합이 야3당 선거연합을 앞지르며 주지사 과반마저 좌파 선거연합이 장악할 것으로 예측됨.

AMLO 행정부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Oraculus, AS/COA

멕시코 정당별 상·하원 의석 수 (단위: %)

정당명	상원	하원
국가재건운동(MORENA)	58	193
국민행동당(PAN)	22	79
노동당(PT)	7	61
사회관계당(PES)	5	58
제도혁명당(PRI)	14	42
시민운동당(MC)	7	26
민주혁명당(PRD)	9	23
환경주의 녹색당(PVEM)	5	17
신동맹당(PANAL)	1	1
<b>총 의석 수</b>	<b>128</b>	<b>5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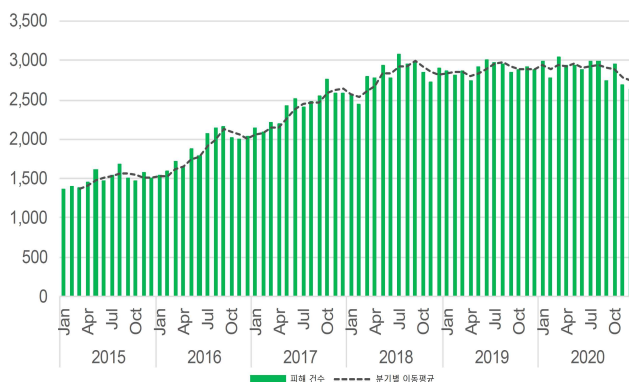
자료: CIRCA People in Power, IHS Markit

##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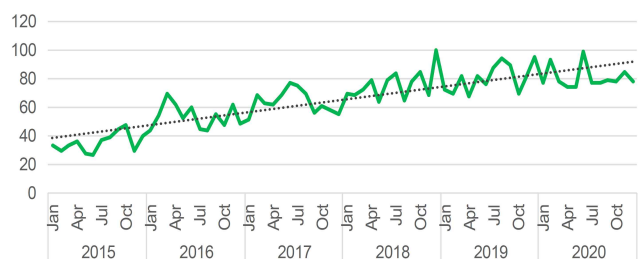
### 열악한 치안,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0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법치지수는 세계 128개국 중 104위를 기록하며 전년(101위)보다 3계단 하락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부패(121위), 질서 및 안전(121위), 민사 사법정의(116위), 형사 사법정의(119위) 등이 최하위권에 머무름.
  - 부패 중에서는 입법부의 부패, 질서 및 안전 중에서는 폭력을 통한 고충 해결, 민사 사법정의 중에서는 불합리한 지연, 형사 사법정의 중에서는 효과적인 수사의 부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IHS Markit의 멕시코 폭력범죄 보고서(2021. 3월)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에서만 34,515명의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마약 카르텔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AMLO 대통령은 취임 후 열악한 치안과 높은 범죄율의 원인을 빈곤과 실직으로만 한정하며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회피하고 있어, 향후 마약 카르텔 주도 범죄 성행에 따른 치안 악화가 예상됨.
  - 일례로, 2020년 6월 26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이 멕시코시티 경찰서장을 향해 수백 발의 총탄을 사용해 살해를 시도하였음에도 AMLO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는 결코 없을 것이라 밝힘.
- ‘페미사이드’(femicide, 성차별·성폭력이 수반된 여성 살해) 피해자 수는 2015년 대비 135% 증가하며 여성들의 치안이 매년 악화되는 추세임. 이에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멕시코 여성들은 여성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대통령 궁 앞에 운집하여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AMLO 대통령은 이를 수구세력의 선동으로 간주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지 않음.
- 또한, AMLO 행정부는 출범 때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을 이어 왔으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멕시코 부패척결위원회(MCCI)와 현지 일간지 레포르마(Reforma)의 2020년 국민 부패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주요 문제 중 부패(12%)는 치안(58%)에 이어 2위를 기록함. 또한, 부패행위의 주요 요인에 대한 설문에는 39%의 응답자가 ‘무처벌’이라고 답함.

멕시코 살인범죄 피해자 수 (단위: 명)



멕시코 페미사이드 범죄 피해자 수 (단위: 명)



자료: 멕시코 국가공공안전사무국(SESNSP), IHS Markit

## 사회안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1. 2월)는 ESG 요소가 멕시코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극심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여행수요 감소, 긴급 재난지원, 재해 대비 지출 등이 멕시코의 지방 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나, 멕시코 경제의 규모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멕시코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EMEX 간의 높은 상호의존도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멕시코는 자국민들에게 교육, 주택, 보건, 안전 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폭력범죄가 급증하여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련 문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멕시코는 거시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온 국가이나, 최근 대 멕시코 투자 전망 악화, 코로나19 등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은 멕시코의 지배구조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함. 멕시코 중앙은행의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로 인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미국과는 상반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갈등 우려

- AMLO 행정부는 실리를 위해 외교관계 및 국제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양자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상반된 기조를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린뉴딜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구체적으로는 2019년까지 미국 에너지 시장의 80%를 차지하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양광 및 풍력으로 전환할 것이며,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 밝힘.
- 이에 반해, AMLO 행정부는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는 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므로 향후 양국간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0년 7월 1일 USMCA가 발효되며 역내 교역 활성화 및 대 멕시코 투자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멕시코의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및 민간기업의 경쟁 제한은 USMCA 위반 소지가 있어 협정의 순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 미-멕시코 국경 지대에 불법 이민자 폭증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를 유지하는 등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함. 이에 미-멕시코 국경지대에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렸으며,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미국에 가려는 멕시코 성인 남성들임.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0년 10월 ~ 2021년 2월 미-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38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이와 같은 불법 이민자 행렬에 따른 국경 지대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AMLO 행정부와 동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임 행정부보다 더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경 안전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 153.23억 달러(단기 50.75억 달러, 중장기 102.48억 달러) 중 연체액은 1.32억 달러로 0.9%에 불과하며, 외채의 66.9%가 중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0.10)	3등급(2019.10)
Moody's	Baa1(2020.04)	A3(2019.06)
Fitch	BBB-(2020.04)	BBB(2019.06)

### 국가신용등급은 양호,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은 2020년 4월 이후 유지

- 멕시코는 2009년 이후 OECD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및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증가를 근거로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는 2021년 2월 25일 멕시코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의 중장기적 성장 전망 악화 및 PEMEX에 대한 지원 유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존 Baa1 등급 및 '부정' 전망을 유지함.

- 멕시코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에 따라 -8.2%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경기부양책 기조를 유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6%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소폭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치안 문제 개선을 표방하였으나, PEMEX, CFE 등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본 투입, 폭력 범죄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정책성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2021년 6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여당 MORENA 주도의 선거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MLO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AMLO 행정부는 2021년 1월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USMCA 발효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등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됨.